

■ 피델 카스트로에게 보낸 작별 편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아바나
농업의 해¹⁾

피델

지금 이 시각 여러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집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합류를 권했을 때 그리고 준비과정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인가 사망통지서를 받을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혁명에서는, 진정한 혁명에서는,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수많은 동지들이 혁명 도정에서 스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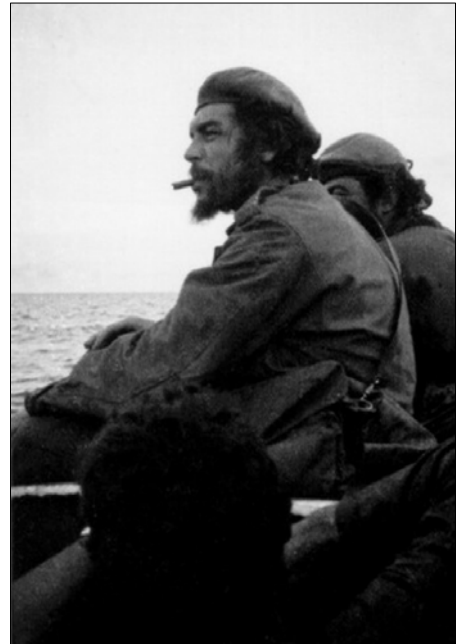
지금은 그런 일도 예전만큼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유는 우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일 뿐, 사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쿠바 땅에서 혁명과 관련된 내 과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므로, 당신과 동지들과 당신의 국민과(이제 내 국민이기도 합니다) 작별하려고 합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당지도부의 직책과 장관직과 사령관직에서 사임하며, 쿠바인 신분을 포기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나와 쿠바는

1) 1965년, 피델 카스트로는 1965년 10월 3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 편지를 낭독했다.

무관합니다. 다만, 공직임명과는 달리 쉽게 단절할 수 없는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건대, 혁명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매우 정직하고 또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중대한 과실이 하나 있다면, 시에라 마에스트라 시절 초창기부터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또 혁명가로서, 지도자로서 당신의 자질을 좀 더 일찍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나날은 장려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카



1965년 11월 21일, 배를 타고 콩고의 탕가니카 호수를 건너는 체 게바라

리브 위기²⁾ 때는 당신 곁에 있는 나 또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당신보다 명민하게 대처하는 지도자는 없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사고방식, 위험과 원칙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당신의 방식을 따랐는데, 이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미력하나마 내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쿠바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건설자로서 가장 순수한 희망과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여기에 두고 갑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자식처럼 받아준 국민들을 두고 가려니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집니다. 새로운 전장(戰場)에서도 당신이 심어준 신념, 우리 국민들의 혁명정신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2) 1962년의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주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고결한 의무의 이행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반제투쟁은 힘을 북돋아주고, 제아무리 큰 상처라도 치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로 인해 쿠바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쿠바의 예를 따른 데서 나오는 책임은 예외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하늘 아래서 최후를 맞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쿠바인들, 특히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내 행동이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여, 충실히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곧 우리 혁명의 대외정책이라고 생각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머물든 쿠바 혁명가로서 책임감을 느낄 것이며, 또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합니다.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충분히 제공할 것이므로, 내 가족을 위해 특별히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우리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몇 자 더 적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승리의 그 날까지
조국 아니면 죽음을!
혁명의 열기로 안부를 전합니다.

체

[박병규 옮김]